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운동권 내에서 모색되던 시기라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폭압체제 속에서 뿌리없이 방황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다.

나는 고민 끝에 서울근교에 있는 대학을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왜냐하면 운동권 사람이 서울 내의 대학에 다시 진학 하고자 하는 경우 사찰당국이 이를 미리 알고 불합격시킨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인하대학교를 선택했다. 예비고사부터 치루고, 본고사도 치렀다. 그런데 수석 합격을 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민망스런 일까지 발생했다. 덕분에 사찰 당국은 나를 불합격시킬 수는 없었다.

다시 학생이 된 것이다. 학교에 다시 다니는 동안 홍사단 인하대아카데미를 지도했다. 미안한 심정을 보상하는 의미도 있었다. 1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최종식 선생의 <서양경제사론>를 수차례에 걸쳐 강독했던 기억이 난다. 인하대에서는 나중에 인천 운동권의 주역이 된 안영근(현 국회의원), 곽한왕(현 과거사진실규명위원회 위원), 조용호(현 사업) 등을 만났다. 또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로 있던 김대환 선배(현 노동부장관) 등을 만났다. 하지만 대학에 다시 가서 새로운 비전으로 내 길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치는 않았다.

이런 속에서 79년 10. 26 박정희의 죽음, 유신체제의 종말을 맞았다. 여기서 나의 70년대도 마감됐다. 나는 80년도에 서울대로 복학하여 서울의 봄을 맞았다.

이상이 70년대에 내가 걸어온 길이요, 자화상이다. 그것들은 나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나의 역사' 이지만, 이미 나의 영역을 떠나 '우리의 역사'가 되버린 부분들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는 여러 대목에서 마음이 아프고, 회한이 다가왔다. 특히 여기서 언급한분들이거나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 많은 빛을 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크게 빛진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살고자 한다.

_포도소안에서 가진 제2의 인생



전북대 기계공학 74학번,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전국연합회 상임총무, 전북실업지중환자센터 소장, 전주 갈릴리교회 담임목사,
최인규 _사단법인 전북실업자 종합지원센터 이사장(현)

우리 세대는 입학 때부터 살벌한 분위기를 몸으로 느끼며 살았고, 암울한 70년대 중후반과 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친 후에는 사회 각 부문의 현장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살아온 어찌보면 불우하다고 할 수 있는 세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아마 같은 시대를 살아온 모든 분들이 다 비슷하겠지만, 나에게 20대는 오직 학습과 조직과 운동과 도피와 구속 등을 반복하던 10년이어서, 젊은 피가 끓는 청춘들이 겪어야 할 감상적 추억이 없음에 때로는 화도 나고, 때로는 안타까운 생각이 지금도 많이 들기 때문이다.

지난 날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나는 1974년에 입학하자마자 교회 선배의 권유로 고등학교 시절 활동했던 서클의 대학조직인 기독교학생회(KSCF)에 가입하고 남들처럼 대학 1년생이 가지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곧 이어 신문에 빨간(실제로는 새까만 색이지만) 간첩단 사건이 발표되고 전국적 조사와 함께 검거 선풍이 불었다. 그 바람은 우리 서클의 허종현 선배(지금 은 전주의 성공회 신부)가 조사를 받고 전국 대학의 학생활동을 대거 위축시킬 만큼 위력이 대단하였다. 우리 지역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대학생활과 서클활동을 할 수 있었으나, 나는 서울을 오고가며 민청학련과 인혁당 사건의 전모를 듣고 알게 되었고, 점차 학생운동의 중심

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74년 가을 전국적인 학내 시위의 여파로 우리 대학도 시위가 몇 차례 있었다. 75년에는 이 넘서클을 불법화시키면서 내가 있던 서클은 등록을 하지 못한 채 소위 언더 서클로만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다른 서클과 달리 우리는 교회와 대학이 연계해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전국적 행사(전국 기독교청년대회, 구속자를 위한 목요 기도회, 전주 신구교연합 기도회 등)를 통해 조직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고, 학습과 훈련 그리고 현장 활동 등으로 체계를 갖추며 지역간 연합활동까지 해 갈 수 있었다. 75년 긴급조치9호 발동 이후 서울과 각 지역 대학의 학내시위가 간헐적으로 지속되었고, 전주에서도 작고하신 고 은명기 목사님의 구속과 그분의 석방을 위한 기도회 등으로 박정희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의식이 점차 고조되던 시기가 또한 그때였다.

77년 부활절을 맞이한 광주지역 십자가행진 사건으로 몇몇 목회자가 구속되고, 광주지역에서 학생운동을 하던 친구가 전주로 도피해 오게 되었다. 서클의 후배들과 함께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한 후, 전주에서도 몇 차례의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여 학내시위를 유도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후배의 자취방에서 역할분담에 따른 준비를 한 뒤 등사기를 빌리기 위해 어느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갔다. 어떤 남자가 방에 목사님과 함께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전주서 정보과 형사였으며, 정부에 비판적 의사를 자주 표명했던 그 목사님을 사찰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런 일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던 나는 눈치를 채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등사기 사용을 부탁하였고 허락을 받았다. 그러곤 별 문제 없이 그곳에서 '고난동참 투쟁 선언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등사하여 후배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날 저녁 전주시내 교회들에 유인물이 뿌려졌고, 대학 곳곳에도 뿌려졌다. 그로 인하여 교회와 학교는 술렁거렸고, 학교와 정보당국은 그들 말대로 '흑색선전물' 사태에 무척 심각했고 당황했다고 한다.

그 사건의 관련자를 색출하기에 혈안이 되었던 다음날 아침, 나는 태연하게 학교에 가서 상황을 살피고 이번 일에서는 빠졌던 다른 후배들과 함께 그 다음 일을 모색하다가 집에 왔다. 그때 집에는 이미 안면이 있던 대학 학생과 직원과 어떤 낯모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나를 다짜고짜 연행하여 전주서 정보과에 끌려가게 되었다. 들어가자마자 정보과장이란

사람에게 정신없이 구타를 당하고 정신을 차려 주변을 둘러보니, 목사님 집에서 본 일이 있던 그 남자가 거기에 있지 않은가?

머리가 아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찰나의 생각으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도저히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이 사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겠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것을 나 혼자 주동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두 명의 후배만이 그 일에 연루되었다고 자술했다. 그 다음날 밤 자취방에 있던 후배 몇 명이 조사를 받긴 했으나 다행스럽게도 나와 후배 둘만 구속되고 한 명은 수배가 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하루 이틀 밤사이에 일어났던 급작스런 일이었다.

충분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의 부족으로 크나 큰 오류에 저지른 것에 대해 자괴감과 부끄러움과 미안함을 느꼈다. 이런 심정 속에 난생 처음 검찰조사란 것을 경험한 나와 후배들은 지칠 대로 지쳐 하루 빨리 교도소로 넘어가 쉬고만 싶었다. 그러다 들어간 곳이 전주교도소 4동의 아래층 방이었다. 두려운 마음으로 교도소 문을 통과했던 나는 희미한 등불 아래 0.75평의 독방에서 우습게도 너무도 편안한 첫날밤(?)을 보낼 수 있었다.

교도관의 기상 소리에 깜짝 놀라 새우잠을 자다 눈을 떠보니, 갑자기 옆방에서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뒤편 변소 쪽으로 나오려는 것이었다. 변소 문을 열고 창쪽을 내다보니, 어떤 분이 "학생인가?"라고 하기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몇 가지를 묻고 답하는 중에 조금씩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가 교도소에 있다는 현실을 깨닫고 징역생활을 위한 마음의 준비를 서서히 하기 시작했다. 조금 있자 아침밥을 받으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출입문에 있던 작은 구멍이 열렸고 어떤 사람(소지라고 불렀음)이 가다 밥이란 것을 주어 밥을 받아 맛있게 먹었다. 또 조금 있으니 운동하라는 소리가 들렸으며 시간이 좀 지나자 사람들이 한 사람씩 차례로 내 방 앞을 지나가며 이렇게 말했다. "나 문익환 목사야!" "나 동아투위 이부영이야!" "명동사건 이명준이야!" "나 김명식 수사야!" 그 분들의 한결같은 말씨는 "환영한다!" "정말 잘했다!"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이었다. 얼마나 기쁘고 편안하고 감사하고 흥분되었던지!

그로부터 20개월을 전주교도소와 광주교도소에서 생활하며 나는 제2의 인생을 사는 듯했

다. 새롭게 만나는 동지들, 선배들, 어른들, 이 시대의 양심들, 인혁당 어르신들, 미전향장기수 어르신들, 지금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여전히 몸을 불사르고 계시는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토론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면서 스스로 인식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광범한 분야의 서적을 탐독하며 지내던 그 시절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삶을 살아오는 데 확고한 신념과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78년 12월 출소한 이후부터 나의 삶은 운동과 도피와 구속의 연속이었다. 79년 초 병역문제대책위원회 활동에 따른 도피와 구속, 80년 민주화의 봄에 잠시 복학하였으나 곧바로 또 도피와 구속이 이어졌다. 그리고 선교교육원을 거쳐 기독교청년운동과 민중목회와 지역운동에 이르기까지, 20개월의 교도소 생활은 연이은 나의 활동을 지치지 않고 힘 있게 전개 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역량을 준비하고 마련케 한 지극히 소중한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한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28년 전의 일을 기억해 내며 정리하기가 여간 쉽지는 않으나, 이렇게라도 간단한 소회를 정리하고 보니, 이 글을 쓰게 한 분의 계속된 권유가 고맙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글을 쓰는 순간순간, 지난 77년 4월 교도소로 이송되기 위해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차에 타려던 순간 내 눈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절규하듯 부르며 힘없이 쓰러지신, 지금은 소천하신 지 20년 된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여전히 나의 가슴을 아리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그 분의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살기 위해, 또한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가족과 친구와 선후배들 그리고 우리 민족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서 소명을 다하는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본다. 특별히 이 글을 빌어 78년 첫 번째 교도소 생활 직후인 79년 1월에 만나 도피와 투옥을 반복하는 나를 바라보며 온갖 궁핍과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함께 헤쳐 온 나의 아내, 한번도 지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늘 내 옆에서 넘어지거나 어긋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기도하고 협력해 준 나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내 푸르른 '77년의 서울대 26동 사회학과 심포지엄



김석준 서울대 사회학과 75학번, 부산경남민주화교수협의회 총무, 영남노동운동연구소 소장, 2002년 민주노동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교수(원)

나는 1975년 사회계열로 입학하여 1976년 2학기에 사회학과로 학과 배정을 받았다. 입학 당시부터 부산고 선배들의 권유에 따라 사회과학연구회(원래 정식 명칭은 한국사회연구회였으나, 학교 당국에 등록하여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연구회로 이름을 바꾸었다)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였다. 1976년 가을 축제 때 감나무골 사건에 연루되어 남부경찰서에 연행되어 마지막까지 잡혀 있었다. 당시 함께 구금되어 있던 양관수 선배와 전재주 선배는 제적당하고 말았다.

1977년 봄학기부터 사회과학연구회 회장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회학과 심포지엄도 준비하게 되었다. 1977년 서울대 학생운동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진 사회학과 심포지엄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필자가 자서전 형식으로 썼던 <희망으로 가는 길>(2002, 도서출판 바우디자인)에서 관련 부분을 옮겨 보기로 한다.

3학년이었던 1977년은 사회학과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였다. 거기에 맞춰 사회학과 학생들은 10월에 있을 축제 직전에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다. 심포지엄의